

13. 도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피부 T세포림프종

성별 남 나이 46세 직종 도장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박○○은 1986년부터 S중공업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을 하다가 2001년 12월 G 대학교병원에서 피부 T세포림프종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박○○은 입사하여 1994년 2월까지 7년 4개월간 특수선 Tank 안에서 spray 도장을 하다가, 1994년 3월부터는 Block spray 도장을 하였다. 그러나 수개월 후 직영 도장직이 없어지면서 약 2년간은 도장 협력업체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1996년경 직영 도장직이 신설되면서 반장으로서 현장 감독을 하였는데, 1997년부터는 피부질환 때문에 도장부 소속 검사업무로 바꿨다. 초기 약 7년간 수행한 특수선 Tank 도장 작업은 보호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하루 약 10시간 근무 중 spray 작업을 약 6시간 정도 하였다. 도장 작업에서 사용하는 약 100-150종의 도료 성분 중 현재는 tar 성분이 많이 줄었으나 과거에는 tar와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한다. 과거 직업력상 22세 때인 1977년 12월 1일부터 3년 6개월간 H중공업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H중공업 도장 shop에서 선박 배관 등 일반 내장물의 touch-up 도장을 하면서 일부 spray 도장도 하였다. 1981년 5월부터 S중공업 조선소에 입사할 때까지 5년 6개월간은 D조선 협력업체 소속으로서 도장을 직접 하지는 않고 현장의 도장 작업을 관리하였다.

3. 의학적 소견: 1997년경부터 홍반성 구진(papule)이 얼굴에서부터 시작하여 양팔과 양손, 두피로 진행하였는데 가려운 증상과 피부 소견이 좋아지고 나빠지기를 반복하여 의원에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투약하였으나 2000년부터 점점 악화되어 2001년 12월 19일 G대학교병원 피부과를 방문하였다. 이에 2001년 12월 이마에서 조직검사를 하여 만성 피부염으로 나왔지만 피부 T세포림프종으로 판단하고, 2002년 1월 4일부터 자외선-A 치료를 계속 하면서 2002년 10월 이마에서 조직검사를 다시 하였으나 역시 만성 피부염으로 나왔다. 이후에도 자외선-A 치료를 계속 하다가 2003년 6월 2일부터는 자외선-B 치료로 바꿨다.

4. 결론: 박○○은

- ① 피부 T세포림프종으로 진단되었고,
- ② 피부 T세포림프종의 피부소견이 나타날 때까지 20년간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각종 도료에 노출되었으나,
- ③ 현재까지 피부 T세포림프종이 특정 직업이나 화학물질 노출과 연관되어 발생한다는 역학적 연구결과가 부족하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